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에 대한 부모의 걱정 탐색

모아라

연성대학교 사회복지과

An Exploration of Parental Concern about Infant's Smartphone Usage Experience

A-Ra Mo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Yeonsung University, Anyang-si 14011, Korea

[요 약]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영아기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에 대한 부모의 걱정을 파악하는 데 있다. 연구 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에 있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6명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경험]에 관한 주제군에서는 <일상 생활화>, <육아 보조역할>로, [부모의 걱정]에 관한 주제군에서는 <막연한 교육적 기대>, <발달과정상의 문제>, <중독 성향>으로 주제를 분류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향후 영아기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스마트폰을 포함한 디지털 기기 사용의 올바른 지도방법에 대한 부모교육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arental concern about infant's smartphone usage experience.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6 parents with infants liv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data were collected by focus group interview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parent's smartphone usage experience could be classified as "Everyday life" and "Supporting tool of parenting". And parental concern could be classified as "Uncertain educational expectation", "Developmental problems", and "Addiction propensity".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problems of smartphone usage of infants, and providing basic materials for parent education about correct guidance and addiction prevention of digital devices including smartphone.

색인어 : 영아, 스마트폰, 사용경험, 부모걱정

Keyword : infant, smartphone, usage experience, parental concern

<http://dx.doi.org/10.9728/dcs.2017.18.4.691>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10 July 2017; Revised 26 July 2017

Accepted 28 July 2017

*Corresponding Author; A-Ra Mo

Tel: +82-10-2248-0196

E-mail: moara0515@hanmail.net

1. 서론

2016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인구 100명당 스마트폰 가입자는 90.6명으로 전체 인구의 90%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만 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88.3%로 2010년보다 10%이상 증가하였는데, 3~9세의 이용률은 82.9%로 2010년의 85.5%보다 약간 감소하였고, 주평균 이용시간은 5.3시간으로 2010년 9.5시간보다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

영유아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들의 경각심 때문인지 이용시간은 줄었지만, 여전히 80% 이상의 이용률을 보여 스마트폰 사용은 영유아에게도 불가피한 일인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러닝의 메체인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은 문자, 음성, 이미지, 비디오 등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 스마트폰(smartphone)은 PC의 소형화된 운영 체제를 탑재한 기기에 무선 전화 통신 가능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듈이 추가된 휴대 전화이다. 스마트폰은 전화통신기기이기도 하며, 전자 우편, 인터넷 검색, text 읽고 쓰고 저장하기, 추가적인 앱 설치 등 응용기기로서의 기능사용이 가능하고 소형전자컴퓨팅기기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무선 인터넷 접속기능을 이용하여 인터넷 및 인트라넷 직접 접속할 수 있다[3][4].

스마트폰은 단순 통신도구를 넘어 인터넷이라는 온라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개인적, 사회적 파급력은 점점 증가하여 교육관련 분야에서도 스마트폰의 수용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연구도 점차 늘었는데, 영아의 경우는 스마트폰 사용의 주체가 부모이므로 주로 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 여부에 따라 부모의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은 달랐다. 영아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부모들은 주로 20개월 무렵 스마트폰을 보여주었고, 시간을 때우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였으며 주로 부모가 먼저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부모들은 스마트폰 사용이 영아의 인지발달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으나 정서적 발달에는 부정적이라고 보았다[5].

영아기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본 연구가 많은데, 자녀를 돌볼 때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주의력이 떨어져 자녀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6].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몰입하여 사용하면 영아의 외연적 문제행동이 높아지는 등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한다[3]. 즉, 양육시간이 길어지면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7][8].

영아의 직접적인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 대부분 어머니의 인식이나 양육 관련 변인을 연구주제로 함께 다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영아가 처음 스마트폰을 접하는 것은 대부분 부모이며 영아의 1/3 이상이 매일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과반수 이상이 주 3~6회 사용하고 있었다. 취업모의 영아

가 사용빈도가 더 높았으며 영아가 선호하는 스마트폰 콘텐츠는 동화와 동영상의 가장 많았다.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인식으로는 부정적인 경우 전자파 및 시각장애를 우려하고 있었고, 긍정적인 경우 ‘학습도움’을 이유로 들었다. 긍정적인 경우도 장시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9]. 사용 장소는 대부분 집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며 식당이나 차 안이 그 뒤를 이었다. 사용목적은 영아가 원해서가 가장 많았고 영아를 달래거나 일 하는 동안 방해받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영아가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자녀와 함께 상호작용하는 어머니는 24%에 그쳤고 과반수가 자신의 할 일을 한다고 했다[10]. 이러한 최근의 연구들은 컴퓨터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에 영유아들이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영아의 기준을 보면, 『유아교육법 제2조 1항』에서는 유아의 범위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로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만0세~만2세 영아를 기준으로 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만0세~만2세를 영아의 범위로 정하였다.

영아는 유아보다도 부모와의 밀착도가 높고 영아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그동안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연구는 양적연구에 그쳤고,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를 함으로써 그간의 연구에서 파악되지 못했던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내면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에 대한 부모의 걱정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2-1. 연구 참여자

현상학적인 연구방법에 있어 대상자의 선택기준은 연구 주제를 경험하였고, 그 경험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참여자이다[11]. 따라서 연구 참여자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1차 연구를 시작하였다. 1차 연구는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부모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활용하여 연구 참여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2차 및 3차 연구 참여자는 1차 연구 참여자 중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이 있는 부모 6명을 선별하여 진행하였다. 질적연구는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혹은 ‘그 본래 입장에서’ 접근하여 서술적으로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므로 많은 인원의 참여자보다는 인터뷰 내용이 분석 가능한 자료로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첫째, 영아기 자녀가 있는 사람

둘째, 영아기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경험이 있는 사람 셋째, 연구의 취지에 동의한 사람들이다.
연구 참여자 일반적인 특성은 27세~40세의 어머니 4명, 아버지 2명이었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배경

Table. 1. The general background of the study participants

	Parent's age	Child's sex	Child's age
Mother #1	27	F	Age 0
Mother #2	33	M	Age 1
Mother #3	35	F	Age 1
Mother #4	35	M	Age 2
Father #5	38	F	Age 1
Father #6	40	M	Age 2

2-2.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1차 6월 13일, 2차 6월 20일, 6월 27일 이었다. 설문지 방식과 포커스 그룹(focus group) 면담 방식을 병행하였다. 질문지 방식은 반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20명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차 연구에서 작성된 설문지를 분석하여 본 연구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연구 대상자 6명을 포커스 그룹(focus group)으로 선정하여 2차, 3차 연구를 진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방식의 면담은 보다 면밀한 내용 도출을 위해 총 2회에 나누어 이루어졌다. 미리 준비한 질문으로 시작된 2차 연구는 그룹 면담으로 진행되었으며, 보다 심층적인 내용의 도출을 위해 핵심질문을 다시 정리하여 3차 연구를 진행하였다. 2회와 3회 연구자는 동일하였으며, 한 회당 면담 시간은 2시간 정도로 총 4시간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주관적 개입이나 지식과 선입견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였고, 녹음은 인터뷰 전 내용을 그대로 녹음하였으며 되도록 말 그대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진행에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주관적 데이터를 통해 5개의 문항으로 질문을 도출해 냈으며 본 연구의 반구조화 된 면담에 사용된 질문은 아래와 같다.

표 2. 반구조화 된 질문의 구성

Table. 2. Composition of semi-structured questions

N0.	Contents
1	When will parents use their smartphones?
2	Under what circumstances do parents use their smartphone when they are with their children?
3	What is the positive aspect of showing smartphones to infants?
4	What is the negative aspect of showing smartphones to infants?
5	What is worrying about showing smartphones to infants?

2-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 Colazzi[11]가 제시한 자료 분석절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Colazzi는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의 깊이 있는 성찰을 강조하였으며, 연구자의 지각도 분석 속에 포함시켜야 하고 자료를 수집함과 분석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연구 참여자들이 진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경험 그리고 부모의 걱정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연구 참여자 2명에게 보여주고 유아교육과 교수 2인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으로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표 3. 자료 분석 방법

Table. 3. Data analysis method

Stage	Analytical method
1 Stage	Transcription transcription
2 Stage	Repeat reading
3 Stage	Extract meaningful statements
4 Stage	Gather similar content
5 Stage	Making components

III. 연구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의 스마트폰 사용경험을 Colazzi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11]으로 분석한 결과 85개의 의미 있는 진술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진술들은 유사한 의미로 묶어 주제를 도출하였고, 이후 주제들을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지닌 2개의 주제 군과 5개의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이는 표 4와 같다.

표 4.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에 대한 부모의 걱정

Table. 4. Parental concern about infant's smartphone usage experience

Components	Sub-components
Parent's smartphone usage experience	Everyday life
	Supporting tool of parenting
Parental concern	Uncertain educational expectation
	Developmental problems
	Addiction propensity

자료 분석을 통해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에 대한 부모의 걱정 탐색은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경험과 함께 영아의 스마트

폰 사용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로 인한 부모의 걱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3-1.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

스마트폰의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경험]에 관한 주제군은 <생활의 일상화>, <육아 보조역할>로 주제를 분류할 수 있었다.

1) 일상 생활화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은 가정에서도 시장을 갈 때에도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가장 손쉽고 편하게 검색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많은 시간 스마트폰을 사용 하고 있으며 이것은 곧 습관화 되고 특히 영아의 경우 부모의 곁에 있으면서 부모가 하는 생활습관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에도 연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저희 부부의 스마트폰 보는 습관 때문에 아이가 스마트폰을 찾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순간적으로 무심코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2016. 6. 13. 아버지 5)

회사에서도 일하다가도 한 번씩 봐야 마음이 편해져요. 쉬는시간에 스마트폰을 보게되는데 보다보면 애기는 지금 뭐하나 궁금해져서 또 보게 되고요.(2016. 6. 20. 어머니 4)

운전할 때 빼고는 항상 보는 것 같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쇼핑도 하고, 새로운 정보도 받으니까요. 어린이 집에서 바로바로 올려주는 애기 사진 보는 것도 쏠쏠하고요. 아무튼 손에서 놓지를 못해요.(2016. 6. 27. 어머니 2)

제 댁에는 스마트폰을 과도하지 않게 사용한다고 생각해도 돌이켜보면 아이사진도 스마트폰으로 찍고, 보기도하고 집에 필요한 장보기도 스마트폰으로 배송주문하고, 멀리 사시는 어머님께 아이 보여드리기 위해 영상통화도 하는 등등 나름대로 유용한 기능만 알차게 사용하니까 중독성이랑은 멀다고 생각하는데 아이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다 해내니 얼마나 대단해보이겠어요. 엄마 아빠가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모습이 아이의 시선에는 더욱 만져보고해보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걱정이 되어가고 있어요.(2016. 6. 27. 어머니 3)

어린이집에서 아이 데리고 집으로 갈 때에 그냥 유모차에서 심심해하는 것보다는 아이 좋아하는 캐릭터 동영상이나 동요를 틀어주면 아주 신나하거든요. 영영이가 들썩들썩~ 그럼 저는 유모차 밀면서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집에 들어올 수 있으니 편해요. 그러다보니 일상 속에서 없으면 너무 힘들 거 같아요.(2016. 6. 13. 어머니 4)

여행갈 때 혹은 맛집 찾을 때에 제가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찾고 있으면 이게 뭐냐고 물으며 자기도 눌러보고 있어서 호기심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2016. 6. 13. 어머니 2)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마다 한 번씩 보게 되니까요. 재밌고 신나는 개러가 나오면 나름대로의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을 느껴요. 아이 때문에 운동을 갈 수도 쇼핑도 맘대로 나갈 수가 없는데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그 변화하는 세상을 가장 손쉽고 편하게 검색 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이더라고요.(2016. 6. 27. 어머니 3)

2) 육아 보조역할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은 식당을 가서 밥을 먹을 때, 집안일을 할 때에 보여주게 되고 이것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해소 창구,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육아의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불가피한 개인시간이 필요할 때에 부모의 보조적인 역할로써 영아기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스마트폰도 TV처럼 자제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막상 집에서 집안일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가 마냥 혼자 노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보니 제가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보여주자는 식으로 일과 중에 두세 번은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시간이 좀 생기니까 집안일도 좀 하고 저도 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무한정 보여주진 않아요. 저 나름대로 걱정시간은 지키는 편인데 사실 일마치고 스마트폰을 아이에게서 달라고 할 때는 아이가 더 보려고 울거나 떼를 써서 그 상황을 달래야 하는게 좀 안 좋죠.(2016. 6. 27. 어머니 2)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게 되면 아이는 먹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렇다고 어른이 먹는 동안 양전히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그때 만이라도 보여주는 편이에요. 식사 끝나서 식당을 나갈 때 까지만... 그러면 괜히 식당에서 야단치느라 주변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아이도 집중할 것이 생겨서 편하니까요. 애기 엄마랑 서로 번갈아가면서 애기를 보더라도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것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2016. 6. 20. 아버지 6)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큰 도움이 안된다는 걸 알면서도 대중교통 이용할 때에도 작은 소리로 틀어줘요. 그러면 일단은 울거나 떼쓰지를 않으니 어딘가를 이동할 때에는 남들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방법을 써요.(2016. 6. 20. 어머니 3)

아이가 스마트폰을 볼 때에 저는 노트북을 켜거나 TV를 볼 수 있으니까요, 아이가 스마트폰 만화에 빠져있으면 저를 안 귀찮게 하거든요. 그래서 편해서요.(2016. 6.

13. 어머니 4)

저는 화장실 갈 때 그 때만 들어주거든요. 제가 아이를 유일하게 데리고 들어가기가 힘든 곳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를 업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놓고 들어가는 게 아이나 저나 서로 편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화장실 들어갈 때만 화장실 앞에 아이를 두고 잠시 들어줘요. 그러면 울지 않고 잠시라도 있어주니깐 다행이죠.(2016. 6. 27. 어머니 1)

애기에게 무언가를 틀어주면 꼭 빠져서 볼 때요. 애기가 나를 닮아서 집중력과 이해력이 좋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하하(2016. 6. 27. 어머니 1)

스마트폰을 보고는 뭔가를 학습하는 것 같지만 막상 스마트폰이 눈앞에서 사라지면, 잘 따라하지 못하는 걸 느껴요.(2016. 6. 13. 어머니 3)

3-2. 부모의 걱정

스마트폰의 [부모의 걱정]에 관한 주제군은 <막연한 교육적 기대>, <발달과정의 문제>, <중독성향>으로 주제를 분류할 수 있었다.

1) 막연한 교육적 기대

영아기 자녀가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로 노래나 단어를 말할 때, 온라인상 다양한 사이트 경로를 통해서 조기교육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 부모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인 교육적 효과가 미비할 것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가 저한테 와서 ABCDEFG~ 알파벳송을 영어로 노래를 불러줄 때는 심심하게 그냥 두는 것 보다는 그래도 낫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2016. 6. 27. 어머니 3)

저는 직장을 다니니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 못해요. 집에 와서도 일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때마다 들어주었는데 유익비디오를 보고 울동이나 동요라도 흥얼흥얼거리고 곧 잘 따라하니깐요. 요즘은 연예인이 다 세잖아요. 하하(2016. 6. 20. 어머니 4)

요즘은 아주 애기 때부터 하는 교육이 대세잖아요. 아무래도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영어로 동요를 따라할 때에는 매우 뿌듯해요.(2016. 6. 13. 어머니 2)

제가 중국어를 자주 틀어주었거든요? 무심코 따라서 하더라도 중국어를 혼자 충얼충얼 하는 것을 볼 때는 머릿속에 입력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오래도록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2016. 6. 13. 아버지 5)

아이가 한창 질문도 많이 하는 시기인데 여러 가지 궁금해 하는 것들을 말로 설명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줄 때도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고 하잖아요. 간단한 검색정도는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게 편해서 그렇게 하는데 화면이 움직여서 그런지 아이가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여요..(2016. 6. 13. 아버지 6)

2) 발달과정상의 문제

영아기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인 문제, 뇌 성장 저해, 스마트폰의 착시현상, 시력저하, 손목터널증후군, 산만함 증가, 자기절제능력의 저하, 기존의 놀이나 학습 방식에 흥미를 상실 하는 등의 발달과정상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으로 인한 발달과정상에 나타나는 신체적·정신적 악영향에 대한 걱정을 부모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가 원래는 장난감 노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들과 노는 것도 좋아했는데요, 요즘에는 장난감도 싫다, 친구도 싫다 그래요. 눈만 뜨면 스마트폰을 찾아요. 이대로 성장하다가 친구들과도 못 어울리고 자기절제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불안해요.(2016. 6. 13. 아버지 6)

이렇게 스마트폰만 찾다가 아이가 발달해가면서 신체적·정신적인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요. 문제가 생긴 이후에는 그 때는 늦은 거잖아요.(2016. 6. 13. 어머니 2)

움직이는 것이 아니면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대형 마트에 가면 TV나 노트북 있는 곳에 가서 전시되어 있는 화면 앞에서 손을 옆에서 드래그를 합니다. 세상에 모든 움직이는 화면은 스마트폰인걸로 착각하는 거죠.(2016. 6. 27. 아버지 5)

아직 애기라서 스마트폰을 많이 보여주진 않지만 이런 저의 스마트폰의 습관이 아이의 뇌가 성장하는데 장해가 될까봐 많이 걱정 됩니다. 그리고 전자파도 안 좋고, 또 스마트폰 기기 자체를 깨끗하게 관리를 한다해도 세균이 워낙에 많잖아요.(2016. 6. 13. 어머니 1)

자꾸만 보다가 눈이 나빠질 것 같아요. 스마트폰 화면이 작으니깐 자꾸만 앞으로 가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보니 스마트폰을 장시간 볼 때에는 눈을 자주 깜빡 거리기도 해요.(2016. 6. 13. 어머니 3)

스마트폰을 집중해서 보는 자세를 보면 손목에는 힘이 들어가고 고개도 자꾸 꼭 숙이게 되는 게 보여요. 요즘에 거북목증후군, 손목 터널증후군 이런 증상 올 수 있다는 뉴스들을 들었는데 어린애들은 신체적으로 더 약하잖아요. 수시로 자세를 고쳐줘도 집중해있을 때엔 금방 소용없더라고요.(2016. 6. 20. 어머니 4)

스마트폰 안에 어플들은 손으로 눌러서 조작이 쉽잖아요. 화면 전환도 빠르고. 책보다 폰 화면에 집중력이 좋은 것 같아 보여도 사실 기능도 많고 쉬운 조작 가능한 특성이 아이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2016. 6. 13. 어머니 2)

스마트폰을 접한 이후에는 아무래도 숫자를 센다거나 생각을 한다거나 글을 읽는다든가 하는 기존의 놀이나 학습 방식에는 흥미를 덜 느끼는 것 같아요.(2016. 6. 13. 아버지 6)

3) 중독 성향

영아기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많은 시간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능력 저하, 왕따나 외톨이로 성장, 폭력적인 변화 등의 중독성향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들의 작은 습관이 아이가 스마트폰 중독으로까지 빠질 수 있는 심각성과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향후 영아기 자녀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부적응까지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가 잠잘 때에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잠이들 정도예요. 자다가도 뺏으면 울고요. 설장을 자게 되니 낮과 밤이 바뀌어져 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2016. 6. 20. 어머니 4)

아이가 벌써부터 잠자는 시간 빼고는 스마트폰을 찾아요 안주면 떼쓰고요 나중에 왕따나 은둔형 외톨이가 될까봐 걱정이 되요.(2016. 6. 13. 아버지 5)

저는 아이가 사회에 나왔을 때, 대인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사회적 적응이 안되서 늘 혼자일까 봐 걱정이 되요.(2016. 6. 13. 아버지 6)

동영상으로만 동화를 틀어주니까 제가 직접 책으로 읽어주는 것은 별로 흥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도 전달을 시켜줌으로써 감수성을 가진 아이로 자라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일찍부터 보여줬나봐요.(2016. 6. 20. 어머니 3)

제가 회사 갔다 오면 저를 기다리는 것보다 제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찾더라고요. 은근히 엄마가 오면 그걸 만질 수 있다는 기대에 기다리는 거구나 싶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안하는 중에도 그걸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요즘 초등학교만 가도 다들 스마트폰을 사주는 분위기인데 일찍부터 스마트폰을 접해서 쉽게 흥분하고, 폭력적으로 혹시라도 변할까봐 걱정도 되고요.(2016. 6. 13. 어머니 2)

저는 스마트폰을 잘 안보여주는 편인데 이따금씩 가족들을 만나면 할머니 할아버지나 삼촌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거기에 설치되어있는 게임을 몇 번 해보더니 배우기도 금방 배워서 모임이 있을 때

다 으레 달라고 해서 하는 거죠. 그냥 어쩌다 잠깐씩이니까 장난감 대신 갖고 노나 보다 하고 저도 그냥 넘겼는데 매번 그러니까 좀 걱정은 되요.(2016. 6. 27. 어머니 2)

주변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초등학교만 가도 요즘은 반 25명중에 20명은 가지고 다닌 데요. 저는 아이가 좀 더 성장할 때까지 안사주고 싶는데 또래친구들에 의해 무분별한 동영상 같은 것도 같이 보게 될 수 있는 건데, 아직은 어려서 제가 끼고 있지만 요즘 시대에서는 집밖에서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으니 걱정이예요.(2016. 6. 13. 어머니 1)

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잠깐잠깐 요긴하게 쓸 때는 좋다가도 막상 스마트폰을 멈추었을 때, 다시 말해 화면을 정지시키거나 꺾을때에 나타나는 후폭풍이 감당이 안되요. 그럼 저는 아이에게 뭐라고 하게 되고 아이는 울고 불고... 이럴때는 저하고 아이 사이까지 안 좋아질까봐 걱정되죠.(2016. 6. 27. 어머니 3)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영아기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에 대한 부모의 걱정을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85개의 의미 있는 진술이 도출되었다.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에 대한 부모의 걱정은 최종 2개의 주제군과 5개의 주제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경험]에 관한 주제군에서는 <일상 생활화>, <육아보조역할>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부모의 걱정]에 관한 주제군에서는 <막연한 교육적 기대>, <발달과정상의 문제>, <중독 성향>으로 주제를 분류할 수 있었다.

<일상 생활화>에서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은 가정에서도 시장을 갈 때에도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가장 손쉽게 편하게 검색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많은 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곧 습관화 되고 특히 영아의 경우 부모의 곁에 있으면서 부모가 하는 생활습관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에도 연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육아 보조역할>에서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은 식당 가서 밥을 먹을 때, 집안일을 할 때에 보여주게 되고 이것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해소 창구,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육아의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불가피한 개인 시간이 필요할 때에 부모의 보조적인 역할로써 영아기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가 무언가를 해야 할 때에 디지털기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했으며 과반수의 부모는 자녀가 즐거워하며 부모를 귀찮게 하지 않고 혼자 놀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기

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김희진[12], 락지혜[13] 및 김주아[5]의 연구와도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양적연구결과와 내용적으로는 유사하나 <일상 생활화>, <육아보조역할>로 범주화하여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경험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겠다.

[부모의 걱정]에 관한 주제군의 주제 중 <막연한 교육적 기대>에서 영아가 자녀가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로 노래나 단어를 말할 때, 온라인상 다양한 사이트 경로를 통해서 조기교육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 부모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인 교육적 효과가 미비할 것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과정상의 문제>에서 영아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인 문제, 뇌 성장 저해, 스마트폰의 착시현상, 시력저하, 손목터널증후군, 산만함 증가, 자기절제능력의 저하, 기존의 놀이나 학습 방식에 흥미를 상실 하는 등의 발달과정상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으로 인한 발달과정상에 나타나는 신체적·정신적 악영향에 대한 걱정을 부모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성향>에서 영아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많은 시간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능력 저하, 왕따나 외톨이로 성장, 폭력적인 변화 등의 중독성향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들의 작은 습관이 아이가 스마트폰 중독으로까지 빠질 수 있는 심각성과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향후 영아가 자녀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부적응까지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시기의 스마트기기 이용이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체, 정서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통제, 자기조절이 어려운 영유아가 스마트기기의 오용으로 인하여 과다이용, 중독현상으로 나아갈 수 있음이 우려된다는 김민희의 연구[14]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존의 연구[5]에서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 부정적인 영향으로 정서발달을 주된 문제점으로 여겼다면(75%), 본 연구에서는 착시현상, 시력저하, 손목터널증후군 등 신체 발달에 대한 걱정도 상당부분을 차지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는 표준 분류체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기존 양적연구 결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부모의 기대내용, 걱정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데 질적 연구의 의의가 있었다. 예를 들자면 양적연구에서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 부정적인 발달 내용으로 단순히 정서발달, 신체발달 정도의 내용만을 전달했다면, 질적연구를 통해 착시현상, 시력저하, 자기절제능력저하 등 구체적인 내용이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향후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경험에 관한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경기지역에 영아 자녀를 둔 부모 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폭넓게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논문은 스마트폰을 포함한 디지털 기기 사용의 올바른 지도방법에 대한 부모교육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이와 관련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지원과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 [1] Statistics Korea, "2016 Korean Social Trends - News report", Statistics Korea. 2017.
- [2] Lee, Hyun-Ki, Yang, Janghoon, Development of Chinese Character Education Content to Activate Both Sides of Brain,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18, No. 2, 239-247. 2017.
- [3]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 2017.05.14.
- [4] Lee, Mesook. A Development of Smart Phone Application Layout Education Program for Gifted Children of Information. Master's Thesis 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2.
- [5] Kim, Juah. A Study of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Parents on toddlers use of Smartphone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14, No.4, 545-569. 2013.
- [6] Seo, Hyeeseong, Parenting Stress, Parenting Knowledge, and Smartphone Use of Mothers, Master's Thesis 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hee University. 2014.
- [7] Bae, Eunhae, Parenting Stress, Parenting Knowledge, and Smartphone Use of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and Mediating Effect. Master's Thesis 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ongik University, 2014.
- [8] Seo, Hyeeseong, Kim, Yeonha, The Determinants of Smartphone Addiction among Mothers of Infa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35, No, 5, 1-14. 2014.
- [9] Lee, Young-Im, The Actional Condition and Mother's Perception of Infant's Smart-phone Use, Master's Thesis 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2014.
- [10] Ryu, Mi-Hyang, A Study of Infants'/Toddlers' Use of Smartphones and Their Mothers' Perceptions on Smartphone Using.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86, 307-329. 2014.
- [11] Colazzi, P. F.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12] Kim, Heejin.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the Prevention of Smart-Phone Addi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2014.

- [13] Kwak, JIhy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of toddlers' use and parents' perception of digital devices, and language development, Master's Thesis on Graduate Schoo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16.
- [14] Kim, Minhee. Mother's Perceptions on the Effect of Using Smart Device by Young Children,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18, No. 3, 517-524. 2017.



모아라(A-Ra Mo)

2006년 :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복지학과 (문학석사)
2014년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문학박사)
2009년~2015년: 서울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2016년~현재: 연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 관심분야 : 유아교육기관 중간관리자교육, 교사교육, 원장교육, 리더십교육, 에니어그램교육